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年 2月

教育學碩士(漢文教育專攻)學位論文

# 孤山 尹善道の 隱居時期 詩世界 研究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漢文教育專攻

徐 龍 奎

# 孤山 尹善道の 隱居時期 詩世界 研究

A Study on Yun Sun-do's  
classical Chinese Poetry in hiding place

2021年 2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漢文教育專攻

徐 龍 奎

# 孤山 尹善道の 隱居時期 詩世界 研究

指導教授 韓 睿 嫻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漢文教育)學位 請求論文으로 제출합니다.


2020年 10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漢文教育專攻

徐 龍 奎

徐龍奎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朴鍾勳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鄭吉香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韓睿源 

2020年 12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 目次

## ABSTRACT

### I. 서론

1. 연구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연구 방법 .....	5

### II. 尹善道の生涯와 思想

1. 尹善道の生涯 .....	7
2. 尹善道の思想 .....	14

### III. 尹善道 한시의 自然觀과 時間觀

1. 隱居地에서의 自然觀 .....	21
2. 隱居地에서의 時間觀 .....	29

IV. 결론 .....	37
참고문헌 .....	40

## 표 목 차

<표1> 윤선도의 유배기 행적.....	11
<표2> 은거시기 윤선도의 작품.....	13



## ABSTRACT

### A Study on Yun Sun-do's Classical Chinese Poetry in Hiding Place

Seo Yong-Kyu

Advisor : Prof. Han Yae-Won Ph.D.

Major in Sino-Korean Literatur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speculate on Chinese poetry by Yun, Sun-Do who was a member of the Honam Namin circle in Honam and one of representative literary persons in Joseon Period along with Song Gang Jeong Chol.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sed his point of view on nature and time focusing on Chinese poetry he created in Bogildo as his important hermitag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ollowings in serial:

First, to closely analyse Gosan's Chinese poetry, this study analysed his life and thoughts.

Although it seemed that he had an easy life as a government officer thanks to his outstanding talent, he was exiled a total of three times: 'from

the age of 31 to 37', 'from the age of 52 to 53' and 'from the age of 74 to 81.' He was a government officer for 12 years, but he was a hermit as twice as longer than 12 years. Therefore, it was analysed that he has a turbulent life.

As for this thoughts, it was suggested that he was indulged in Confucianism from loyalty, filial piety and sympathy he expressed in the following poetry: 「Two Poems of Chaakmangwon」, 「Yongjeonunyoungho i」, 「Byonghwangosan Sunsanggamheung」 and 「Geunhwajeongryongju」. It was discovered that he was also indulged in Taoism from the following Chinese poetry: 「Yongjeongun Heejakyousunsaguhua」 and 「Joju」.

Second, to closely understand Gosan's Chinese poetry, this study analysed his point of view on nature, focusing on Chinese poetry on his heritage.

As for his point of view on nature, it was discovered that he conceptualized nature to pursue for his ideology and enjoyed easy retirement while feeling beautiful nature. In particular, he had his humble attitude as a scholar and was enlightened through his faith on natural objects as seen in 「Gyokjabong」, 「Soeungbyong」, 「Guam」, 「Misan」 and 「Nakseojae」. Both of his points of view on nature that he had an innocent interest in nature and he pursued his ideology as a Confucian scholar were complementary and compatible, not opposite. Also, it was understood that the poems he created in Bogildo as a central heritage showed clearly that he recognized nature as a researcher.

Third, to closely understand his Chinese poetry, this study analysed his point of view on time, focusing on poetry on his heritage.

In Chinese poetry of 「Joju」, 「Nakseojaewueum」 and 「Kisil」, circulatory and permanent time of nature and experimental and finite time

of people were related to gardens he made in Bogildo. It showed that he was relaxed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and his faith was consolidated based on his philosophical point of view on time.

## 국문 초록

### 고산 윤선도의 은거시기 시세계 연구

Seo Yong-Kyu

Advisor : Prof. Han Yae-Won Ph.D.

Major in Sino-Korean Literatur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본고는 宋江 鄭澈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대표적 문학가인 尹善道の 한시를 연구하려고 한다. 연구의 대상은 그의 주 은거지였던 甫吉島에서 창작된 한시로 한정하며, 고산 윤선도의 생애와 사상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에 나타난 자연관, 시간관에 대하여 연구분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고에서는 3가지 연구분석을 다음과 같이 시도하였다.

첫째, 고산 윤선도의 한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그의 生涯와 思想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한 그의 생애는 소년기부터 탁월한 문학적 재능으로 평탄한 관직 생활을 한 것 같았으나, ‘31세부터 37세까지’, ‘52세부터 53세까지’, ‘74세부터 81세까지’ 총 3번의 유배기를 거쳤고, 관직 생활이 12년인 것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되는 은거기와 오랜 유배기를 보냈다. 이를 통해 고산 윤선도는 무척이나 길었던 靑山 鄭澈의 삶을 보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의 사상은 그가 지은 「次樂忘韻 二首」, 「用前韻詠懷」, 「病患孤山 船上感

興」, 「謹和呈龍洲」 등의 한시에서 표현된 忠, 孝, 憐愍 등을 통해 儒家思想에 심취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用前韻 戲作遊仙辭求和」, 「釣舟」 등의 한시를 통해 그가 道家思想에도 심취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고산 윤선도의 은거지 한시를 대상으로 그의 自然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한 그의 자연관은 유가 특유의 특징이기도 한 자연을 관념화를 통한 깨달음을 얻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념 추구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태도는 탐구자 관점과 맞닿아 있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悠悠自適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유람자 관점이 공존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格紫峯」, 「小隱屏」, 「龜巖」, 「薇山」, 「樂書齋」 등의 한시에서 居敬窮理의 모습, 자연물에 본인의 신념을 투영시켜 깨달음을 얻는 모습 등은 자연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드러내는 유람자 자연관과 유학자적 실천의식으로 자연물을 관념화하여 자신의 이념을 추구하는 탐구자 자연관이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유동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 은거지였던 甫吉島에서 지어진 작품은 탐구자 관점의 자연 인식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고산 윤선도의 은거지 한시를 대상으로 그의 시간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한 그의 時間觀은 「釣舟」, 「樂書齋偶吟」, 「記實」 등의 한시를 통해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시간성이 아니고 循環과 永遠이라는 자연의 시간과 인간의 유한한 경험적 시간이 그가 조성한 보길도 園林과 연결되어 그의 심신 안정은 물론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고산 윤선도의 철학적 시간관이 잘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I. 서론

## 1. 연구 목적

본고는 孤山 尹善道(1587~1671)의 보길도 은거시기의 시세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은거기의 시세계는 크게 두 분야이다. 하나는 「五友歌」, 「漁父四時詞」, 「山中新曲」과 같은 시조와 단가가 『孤山遺稿』에 남아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한시 작품들이다. 국문학 분야에서는 시조 작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연구성파로 윤선도는 국문학사에 뚜렷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한문학 분야에서도 윤선도 한시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결코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부분 기초적 연구에서 크게 향상되지는 않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식자층들은 자신들의 格調와 美意識을 구현하기 위해 주로 漢詩 저작을 즐겼다. 漢字를 사용하여 사상과 정서와 감정을 시로 형상화하는 만큼 양반층의 문화적 향유물이라는 의미가 지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선도의 한시는 美를 絶頂에 이르게 하였으며 식자층이 공유하는 문화로 擴散되었다는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윤선도의 시작품은 창작연대가 비교적 명시되는 작품이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윤선도 연구의 주된 경향은 그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品格과 技巧를 대상으로 한 순수비평적 분석과 내재적 비평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윤선도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해석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렇게 창작연대가 분명한 윤선도의 한시작품 분석은 조선시대 한시의 시대적 특성을 비교 고찰하는 하나의 준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그의 세계관이 확립되고, 문학적 내용 및 형식이 풍부해지는 은거시기의 시작품을 분석하면서 그의 다양한 사상적 추이와 형상화된 작품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윤선도 한시 작품 분석의 질적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당시 조선 시대의 士大夫는 세상과 자신의 이상이 맞지 않을 때는 名利를 취하기 위하여 사환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도가 실현되는 때를 기다

리는 것이 지식인이 취할 행동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유학적 出處觀을 가지고 처신하였던 것이다. 자연에 처한 士大夫는 그들의 은거지나 주거지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여 공간을 건축하였다.<sup>1)</sup> 건축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매개로 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이상으로 여겼다. 그렇기에 생활의 물리적인 배경으로 조성된 공간에도 기본적인 사상이 스며들어 있게 된다.<sup>2)</sup>

은거시기 윤선도의 한시 작품에는 많은 조형물의 이름들이 등장한다. 윤선도의 이상향인 부용동 원림은 단순한 은거지가 아니었다. 그 장소에서 바라보는 자연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제3의 공간으로 창출되었다. 그런 윤선도의 의념이 오롯이 한시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윤선도의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에 스며든 윤선도, 작가 본인의 생애와 사상을 함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윤선도는 과란만장한 생애를 보냈다. 과거 시험을 거쳐 사환에 나간 이후 평탄하지 못한 관직생활을 보낸다. 불의와 타협하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은 결국 유배와 해배, 그리고 은거로 이어졌다. 이런 그의 생애에서의 경험은 고스란히 한시작품에 형상화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松江 鄭澈과 더불어 조선 시대의 대표적 문학가인 윤선도의 작품에 드러나는 자연관과 시간관을 분석하여 윤선도 한시의 특색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양신영, 『윤선도 시문학의 공간 의식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2쪽.

2) 이주희, 『시품의 풍격과 한국 은사 문학의 건축』, 가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2~3쪽 참조.

## 2. 선행연구 검토

윤선도의 한시작품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작품에 나타나는 奇巧와 品格에 대한 형식적이고 내재적인 비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당시 漢詩는 양반의 필수 교양인 동시에 자기표현을 위한 서정 양식으로 士大夫에게 필수적인 내적 교류의 수단으로 여겼다.<sup>3)</sup>

상욱은 윤선도 한시 작품을 ‘자연관’과 ‘시간관’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윤선도 한시를 분석하는 좋은 연구방법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sup>4)</sup> 한편 용창선은 윤선도의 시세계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였다.<sup>5)</sup> 기존의 개별 작품에 대한 편협한 접근법이 바로 윤선도 한시연구가 미진한 원인이라고 한다. 때문에 그는 윤선도의 「孤山遺稿」에 수록된 한시 375수를 대상으로 총체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윤선도의 자연관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1957년 朴晟義가 「孤山詩歌」를 통해 고산의 시에 나타난 자연관에 관심을 갖고 상세하게 논의를 시작하면서로 볼 수 있다. 그는 저서를 통해 윤선도의 시조는 우리말을 같고 닮아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탁월한 모사와 기교로 우리 문학사에 가장 빛나는 자리에 있다고 논하였다.<sup>6)</sup> 한편 안병태는 윤선도 작품에 나타난 자연관을 2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순수한 의미의 자연관으로서 소박한 自然美와 그 속에서 느끼며 읊을 수 있는 자연감정이다. 두 번째는 자연 속의 도덕적 이념을 찾고자 하는 자연물에 사상적 의미를 대입하여 스스로 자연물로부터 배움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형태의 자연관이다.<sup>7)</sup> 안병태의 연구는 시작품의 자연관 분석이라는 토대를 마련하였지만, 너무 간단한 구도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하겠다. 시적화자와 자연과의 상호교류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고 하겠다.

3)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98, 112쪽.

4) 상욱, 『고산 윤선도 문학의 자연관과 시간관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12쪽 참조.

5) 용창선, 『윤선도의 한시 연구: 유배와 은거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4~13쪽 참조.

6) 박성의, 『국문학대계 고산시가』, 정음사, 1957. 참조.

7) 안병태, 『윤고산의 오우가에 나타난 자연관』, 『무애양주동박사고회기념논문집』, 탐구당, 1973. 참조.



1980년대 말에 오면 윤선도 작품연구에서 자연관이라는 방법론적 방향이 이전보다 훨씬 구체화 되었다. 金碩會<sup>8)</sup>는 고산 연구사를 중심으로 윤선도가 가지고 있는 自然觀을 궁극적으로는 이념의 거울로서 파악하였다.<sup>9)</sup>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윤선도의 문학연구의 주요한 방법론 중 하나는 ‘자연관’ 분석이다. 그 이유는 윤선도가 유배와 은거를 왕래하였기 때문에 문학작품의 주요 배경이 자연이었다는 것도 있고, 조선의 士大夫들은 공간 속에서 修己를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조성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김경복은 또한 시간을 現存在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는데, 인간이 이해하는 시간의 의미는 인간이 이미 유한적이고 상대적인 존재이고 시간은 이러한 인간으로부터 초월하여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파악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인간에 이해된 시간은 절대적 개념이기보다 때와 장소에 따른 어떤 상대적 의미라고 하였다.<sup>10)</sup>

상욱도 현존재의 개념을 통해 시간을 설명하였는데, 그는 우주 내에 현존하는 사물현상을 현존재라 개념화하면서, 현존재는 우주 내에 있으며 필연적으로 공간 속에 있지만, 반드시 시간 속에서 나타나고 변화하며 소멸하기 때문에 시간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시간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무한개념을 가진 것이라 하였다. 그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인류도 시간의 끝을 보지 못해서 시간의 끝 어딘가에 영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1)</sup>

8) 김석희, 『윤선도의 자연관과 그 실현양상에 관한 연구』, 『고산연구』 1, 고산연구회, 1987 참조.

9) 김영근, 『산중신곡과 어부사시사의 자연관』,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5쪽 참조.

10) 김경복, 『생태시에 나타난 시간의식 의미』, 『문창어문논집』, 2002, 39쪽 참조.

11) 상욱, 『고산 윤선도 문학의 자연관과 시간관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참조.

### 3.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은거시기 윤선도의 한시작품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그의 생애와 사상을 은거시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살펴보려고 한다. 그 다음 은거지 시작품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도 유효한 방법론으로 검증된 자연관과 시간관의 틀을 활용한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길도라는 공간적 + 시간적 좌표 위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先景後情의 배치를 중시하는 한시에서 자연은 대표적인 공간 배경이 된다. 더욱이 出處가 자주 바뀌었던 조선의 사대부들과 자연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윤선도의 선배에 해당하는 鄭澈, 朴仁老 등은 윤선도와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3대 自然詩人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윤선도의 은거지인 보길도에서 지어진 한시를 분석함에 ‘자연관’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은거지에 창작된 각각의 작품을 자연관과 더불어 시간관을 살펴보려고 한다. 윤선도에게 시간은 공간과 함께 가장 중요한 모멘트가 된다. 정치인으로 활동하였던 윤선도는 평생 총 3번에 걸친 유배기를 보낸다. 이어서 윤선도는 정계에 배반당한 쓸쓸함으로 보길도라는 은거지를 찾게 된다. 이러한 윤선도의 생애는 그의 시작품에서 중요한 모멘트로 형상화 되었다. 따라서 그의 한시분석에서 시간관을 방법적 틀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윤선도의 한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째, 은거기의 漢詩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윤선도의 生涯는 『고산유고』 부록에 실려있는 「諡狀」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전체를 수학기, 사환기, 유배기, 은거기의 4부분으로 구분하여 그 특색을 서술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윤선도의 思想은 개괄적으로 표현하면 “나가면 儒, 들어가면 道”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윤선도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중국 및 조선의 대부분의 士人層의 공통적 요소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유가사상적 측면과 도가사상적 측면을 윤선도의 작품을 통하여 고찰하고 해석하였다.

둘째, 윤선도의 은거시기 시세계는 ‘자연관’과 ‘시간관’이라는 공간적+시간적 연구

방법을 가져와서 분석한다. 가능하면 기존연구도 소개하면서 차별성을 적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주로 은거기 초반에는 ‘부용동’을 비롯한 원림을 조성하는 가운데 작위적 활동과 자연이 융합하는 양상을 찾아낼 것이다. 이것을 가설적으로 ‘작위적 자연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은거기 후반에는 역사적 전거를 소재로 자신과 역사적 사실을 동일시하는 정서가 부각되는 작품이 많았다. 이런 작품에서 ‘경험적 시간관’ 또는 ‘초탈의 시간관’을 설명할 수 있다.

윤선도의 은거시기 시세계는 보길도라는 섬에 새로운 이상향을 건설하는 의념과 정의감에 불탔던 정치관을 반추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형상화한 작품세계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尹善道の 生涯와 思想

### 1. 尹善道の 生涯

#### 1-1. 수학기

윤선도(1587~1671)는 조선의 도읍지인 한성에서 태어나 전라도 해남군 보길도에 생을 마쳤다. 본관은 해남이고 자는 約而, 호는 孤山 또는 海翁이다. 아버지는 禮賓寺 副正을 지낸 尹唯深이었으나, 뒤에 강원도관찰사 尹唯幾의 양자가 되었다. 윤선도는 화가로 유명한 윤두서의 증조부에 해당하고,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한 정약용의 5대 조부이기도 하다.

윤선도의 선조들은 대대로 湖南 海南縣에 거주하였다. 고조부 孝貞의 호는 漁樵隱이고 戶曹參判에 追贈되었다. 하지만 본래 隱者의 덕을 지니면서 出仕하지 않았다. 증조부 衢의 호는 橘亭이고, 文科에 급제하였다. 본래 文章과 節行으로 당시에 이름을 떨쳤다. 中廟 초기에 趙靜庵, 趙光祖 등 여러 현인들과 經幄에 출입하면서 임금의 덕을 輔導하였다. 앞으로 큰일을 이루고자 하였지만 끝내 北門의禍에 걸려 讞出되어 全원으로 돌아가 생을 마쳤다. 관직은 弘文館副校理에 이르렀으며, 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sup>12)</sup> 윤선도의 어머니는 順興 安氏로 安珦의 후손으로 承議郎 繼善의 딸이다. 선조20년(1587) 한성에서 윤선도를 낳았다.

윤선도는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났다. 용모도 단정하고 기상이 엄숙하여 사람들이 그 비범함을 칭찬하였다. 8세에 太宗에 양자로 들어가서 뒤를 이었다. 본인은 처음에 양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으나, 倫義와 宗事의 중함을 생각하여, 양부모에게 정성을 다하여 효도를 실천하였다. 이에 관찰공이 “내가 아들이 없다가 효자를 얻었으니, 나는 여한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윤선도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장남 弘中은 文科에 급제하여 禮曹正郎으로 禮曹判書에 추증되었고, 차남 毅中은 문과 출신으로 관직이 議政府右參贊에 이르렀다.

윤선도는 글공부를 시작하였을 때, 부지런히 힘써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 하였다.

12) 윤선도, 「諡狀」, 앞의 책, 492쪽 참조.

10세를 갓 넘기고 山寺에 들어가 독서할 때, 승려들이 큰 법회 열자 많은 유생과 佛者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구경하였지만, 윤선도는 홀로 꼼짝하지 않고 글 읽기를 계속하자 사람들이 모두 기특하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14세가 되던 선조33년(1600)에 처음으로 문학적 두각을 드러냈다. 첫 한시인 「自國島廻舟」를 지어 뛰어난 재능을 드러내었다. 「自國島廻舟」는 훗날 유배지에서 지은 한시와 다르게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소년의 기상이 자연에 빚대어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15세가 되기도 전에 이미 글을 지을 줄을 알아서 한 편씩 발표할 때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윤선도는 이렇게 일찍부터 문학적 재능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 정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17세에 남원 윤씨와 결혼하고, 20세가 되던 1612년에 進士에 합격하였다. 이때 任叔英은 문장으로 유명하였는데, 윤선도가 평임에 지은 시를 보고 당대 제일이라고 칭찬하면서 “이 사람이 반드시 장원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윤선도가 지은 글이 考官들의 평가에 의해 2등이 되고 말았다.

## 1-2. 사환기

이후 벼슬길에 나간 윤선도는 해남을 본거지로 하면서 서울과 해남을 왕래했다. 그가 벼슬살이를 시작한 17세기 조선은 붕당 간의 대립이 치열한 때였다. 동인과 서인의 붕당은 곧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으며, 광해군 때는 임진왜란 참전에 앞장선 북인이 정권을 잡았다. 이후 1606년 陞補試에 장원급제하는 등 학문적 수준이 높아져서 1623년(37세)에는 인조가 義禁府都事를 제수하였다. 1626년(40세)에 安奇察訪과 1631년(45세)에 刑曹正郎에 제수되었지만 곧 사직하였고, 인조 시대에는 여러 차례 제수를 받았지만 불의와 타협치 못하는 성격 때문에 대부분 사직하거나 취임조차 하지 않았다.

인조11년(1633)에 增廣別試에 급제하여, 世子侍講院文學에 임명되었다. 이해 가을에 관서지방의 京試官이 되었다. 윤선도는 科場에서 사사롭게 情에 이끌리는 풍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여러 試官들과 함께 私意를 단절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는 조용하게 考校하여 公道를 회복하고 인재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試場의 일은 모두 上試官(主試官)이 하기에 달렸다. 사적인 정에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뜻

을 펼 수가 없으니, 처음부터 응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자신의 평소 입장을 드러내었다.

이때 宰相 중에 윤선도가 宮師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임금의 신임이 두터운 것을 시기하는 자가 있어서, 거짓 소문을 날조하여 윤선도를 음해하려고 하였다. 이에 윤선도는 끝내 벼슬에 뜻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해남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春坊(世子侍講院)에 두 번 제수되고, 柏臺(司憲府)에 한 번 제수되었으나, 모두 병을 핑계대고 나아가지 않았다. 윤선도는 사후 1675년 숙종으로부터 이조판서에 추증된 것을 포함하여 총 20여 회 이상 관직에 제수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윤선도가 사환의 생활을 보낸 것은 10여 년에 지나지 않는다.

### 1-3. 유배기

첫 번째 유배는 정계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이다. 30세의 윤선도는 당대 정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봉당 세력 내 최고의 권력자이던 이이첨의 전횡을 탄핵하기 위해 「병진소」를 다음과 같이 올렸다.

제가 삼가 생각하건데, 근래의 股肱·耳目·喉舌를 맡은 관원들과 論思·風憲·銓選을 담당하고 있는 관원들은 이이첨의 복심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중략) 그러므로 무릇 대각의 계사에 대해서 전하께서는 반드시 대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기시지만 사실은 이이첨에게서 나온 것이며, 옥당의 차자를 전하께서는 반드시 옥당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기시지만 사실은 이이첨에게서 나온 것이며, 銓曹의 注擬를 전하께서는 반드시 전조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기시지만 사실은 이이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sup>13)</sup>

이렇게 「병진소」에서는 이이첨의 실상을 임금이 파악하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김제남 역모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 당시 김제남 사건으로 상당한 희생을 당했던 서인들은 이를 근거로 윤선도가 소복의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조정을 모함했다는 이유로 함경도 경원, 경상도 기장 등에 유배에 처해졌다.

13)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 진사 윤선도의 상소문(광해군 8년 병진(1616) 12월 21일) 참조.

이는 앞으로 이어지는 유배의 시작이기도 하였다.<sup>14)</sup> 하지만 유배기는 정치가로서의 윤선도에게는 암흑기였지만, 문인으로서는 황금기의 시작이기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윤선도는 이처럼 광해군의 조정이나 영창대군의 옥사, 복인 정권의 전횡을 비판했다

인조1년(1623)에는 義禁府都事가 되었지만 곧 사직하고 고향에서 생활했다. 인조반정 이후에도 사환에 나갔으나 西人의 견제로 관직을 사양하고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이후 봉림대군, 인평대군 형제의 사부로 임명되어 왕가의 스승에 올랐다. 더욱이 세자시강원문학으로 발탁되어 소현세자를 교육하게 되었다.

인조10년(1632) 47세의 윤선도는 증광시험에 장원급제하였고, 이후 경상도 성산에서 목민관을 수행하였다. 이후 윤선도의 인생에 큰 반환점이 되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윤선도는 의병을 이끌고 강화도로 달려갔다. 그러나 강화도는 함락되었고, 인조가 피신 한 남한산성의 통로는 막혀 접근할 수 없었다. 결국 1637년 인조는 청나라에 항복하고 말았다. 윤선도는 육지에 사는 것을 치욕스럽다고 생각하여 제주도로 가던 도중에 보길도를 발견하고는 그 절경 속에서 일생을 마치고자 정착하였다.

두 번째 유배는 1638년 53세 때이다. 윤선도는 병자호란 이후 甫吉島의 산수에 묻혀 지냈다. 하지만 전란이 끝난 뒤 모함을 받고 두 번째 유배를 당한다. 죄명은 병자호란 당시 御駕를 따르지 않았으며, 전란이 끝나고는 서울을 지척에 두고 문안하지 않았다는 不奔問한 죄이다. 경상도 盈德으로 유배되어 1년여간 유배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歇馬孔巖」과 「竹嶺道中」등의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 두 작품은 모두 두 번째 유배지인 盈德으로 향하던 중, 충청도 丹陽을 지날 때 지었다. 유배 길에 올라 무거운 심정을 자연에 빚대어 노래한 윤선도 특유의 표현방식이 자리잡게 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유배는 예송논쟁에서 서인에게 패배하여 1660년 74세 되던 해 함경도 三水에서 유배되어 1665년 79세에 전라도 光眼으로 이배될 때까지 약 5년 남짓 기간이다. 이 시기의 작품 중 「謹和呈龍洲四首」나 「次韻寄謝國卿」 등에는 유배생활의 절박함, 체념, 자괴감, 달관 등의 감정이 잘 형상화 되어 있다. 이상의 유배기를 정리하면

14) 윤선도, 앞의 책, 25쪽 참조.

다음과 같이 된다.

<표1> 윤선도의 유배기 행적

연호	서기	나이	행적	거처지
광해군 8	1616	30	「병진소」를 올림	서울
광해군 9	1617	31	1월 유배	함경도 경원
광해군 10	1618	32	유배기	경상도 기장
광해군 11	1619	33	유배기	경상도 기장
광해군 12	1620	34	유배기	경상도 기장
광해군 13	1621	35	유배기	경상도 기장
광해군 14	1622	36	유배기	경상도 기장
인조 1	1623	37	3월 해배	해남
인조 2	1624	38	은거기	해남
인조 3	1625	39	은거기	해남
인조 4	1626	40	은거기	해남
인조 5	1627	41	정묘호란	
인조 6	1628	42	관직기	서울
인조 7	1629	43	관직기	서울
인조 8	1630	44	관직기	서울
인조 9	1631	45	관직기	서울
인조 10	1632	46	관직기	서울
인조 11	1633	47	관직기	서울
인조 12	1634	48	관직기	성산
인조 13	1635	49	관직기	성산
인조 14	1636	50	은거기	해남
인조 15	1637	51	은거기(병자호란)	보길도 부용동
인조 16	1638	52	유배기	경북 영덕
인조 17	1639	53	2월 해배	경북 영덕, 해남
인조 18	1640	54	은거기	해남 금쇄동
인조 19	1641	55	은거기	해남 금쇄동
인조 20	1642	56	은거기	해남 금쇄동
인조 21	1643	57	은거기	해남 금쇄동
인조 22	1644	58	은거기	해남 금쇄동
인조 23	1645	59	은거기	해남 금쇄동
인조 24	1646	60	은거기	보길도 부용동



연호	서기	나이	행적	거처지
인조 25	1647	61	은거기	보길도 부용동
인조 26	1648	62	은거기	보길도 부용동
인조 27	1649	63	은거기	해남 금쇄동
효종 1	1650	64	은거기	보길도 부용동
효종 2	1651	65	은거기	보길도 부용동
효종 3	1652	66	관직기	서울, 해남
효종 4	1653	67	은거기	보길도 부용동
효종 5	1654	68	은거기	보길도 부용동
효종 6	1655	69	은거기	해남 금쇄동
효종 7	1656	70	은거기	해남 금쇄동
효종 8	1657	71	관직기	서울
효종 9	1658	72	관직기	서울
효종 10	1659	73	관직기	남양주 고산
현종 1	1660	74	유배기	함경도 삼수
현종 2	1661	75	유배기	함경도 삼수
현종 3	1662	76	유배기	함경도 삼수
현종 4	1663	77	유배기	함경도 삼수
현종 5	1664	78	유배기	함경도 삼수
현종 6	1665	79	유배기	전남 광양
현종 7	1666	80	유배기	전남 광양
현종 8	1667	81	7월 해배	보길도 부용동
현종 9	1668	82	은거기	보길도 부용동
현종 10	1669	83	은거기	보길도 부용동
현종 11	1670	84	은거기	보길도 부용동
현종 12	1671	85	생을 마침	보길도 부용동

#### 1-4. 은거기

윤선도의 3번의 유배기 사이에는 해남 및 보길도의 자연 속에서 은거생활을 보냈다. 丙子胡亂 시기 남인이었던 윤선도는 1637년 인조의 ‘삼전도의 굴욕’을 보면서 현실정치를 떠나고자 제주도로 향하였다. 그러던 도중 태풍을 잠시 피하기 위해 들린 섬이 바로 甫吉島이다. 芙蓉洞과 金鎖洞의 자연 심취한 윤선도는 이후 표<1>에서 보는 것처럼 10년 동안 은거 생활을 보냈다. 그는 보길도 곳곳에 洗然亭, 無

悶堂, 曲水堂, 靜成庵 등 25채의 건물과 정자를 세우고, 또 연못을 조성하여 본인의 부용동 정원을 이루었다. 이 당시 금쇄동을 배경으로 지어진 작품이 바로 「山中新曲」·「山中續新曲」·「古琴詠」·「贈伴琴」 등이다.

효종은 왕위에 오르자 자신의 스승 윤선도를 다시 정계로 초빙하려 하였다. 하지만 정적들의 견제로 윤선도는 은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효종 2년(1651) 보길도를 배경으로 「漁父四時詞」 40수를 지어 임금의 곁으로 가고 싶은 심정을 전하였다.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하면서 윤선도는 예송논쟁에 휘말리게 된다. 윤선도 허목, 윤희 등과 논쟁에 앞장섰다. 1차 예송 논쟁 당시 송시열은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결과적으로 윤선도는 서인의 공격을 받고 정쟁에서 패하고, 다시 오랜 기간 유배생활을 해야만 했다. 윤선도가 81세가 되던 현종 8년에야 비로소 사면을 받고, 이어서 은거생활을 하다가 85세에 생을 마감하였다.

은거지 보길도에서의 윤선도의 창작활동은 <표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2> 은거시기 윤선도의 작품

구분	작품명
1637~1638년	「格子峯」, 「小銀屏」, 「龜岩」, 「薇山」, 「朗吟溪」, 「赫羲臺」, 「或躍巖」, 「藏在島」, 「五雲臺卽事」, 「釣舟」, 「樂書齋」, 「石室」, 「黃原雜詠三」, 「羲皇橋」
1642년	「樂書齋遇吟」, 「石假山」, 「藏六窩」, 「挽林僉知確」
1646~1648년	「和李政丞三首」, 「用前韻詠懷」, 「琴客求詩爲作琴誠」, 「琴客遺畫扇題詩其上」, 「挽沈甥光沔」, 「克兒湯餅日作, 八月十三日月下坐龜巖思琴客」, 「朴進士而厚惠西瓜東瓜兼寄絕句五首近體一首次韻答之」, 「客心洗流水」
1650~1651년	「次三閭廟韻」, 「次早發韶州韻」, 「次欒家瀨韻」, 「次班婕妤二首韻四首」, 「戲題紙鳶 二絕, 次韻寄呈松坡居士」, 「和哀林慶業」, 「次韻寄謝李御史裘」, 「次韻寄李開寧翼老」, 「次韻寄韓和叔」, 「次寄韓和叔惠梨韻」, 「漁父四時詞」
1653~1654년	「和諸兒作」

1657년	창작 없음
1667~1671년	「記實」, 「遣懷」, 「仝何閣」

## 2. 尹善道の 思想

### 2-1. 윤선도의 儒家思想

문학 연구는 외면적인 형식과 표현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작가의 사상을 고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 작품 속에는 작가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경험, 그리고 사유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윤선도의 한시에 대한 사상을 고찰한 연구로는 이미 용창선(2004)<sup>15)</sup>, 최미애(2001)<sup>16)</sup>, 원용문(1998)<sup>17)</sup> 등의 선행연구가 정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면서 윤선도의 儒家思想과 道家思想의 특색을 찾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윤선도는 선조 39년(1606) 20세의 나이에 당시 선풍적 인기를 끌다가 禁書로 지정된 『小學』을 접하고 평생의 필독서로 삼았다. 『小學』은 남송의 주희와 유자징이 편찬한 儒學의 입문서이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유가적 이론에 근거한 개혁정치를 시도하였던 趙光祖가 1519년 己卯士禍로 죽임을 당한 이후 『소학』은 禁書가 되었다. 그 결과 『소학』은 책의 유통 및 소장이 매우 어려워졌다. 그런 상황에서도 윤선도는 『小學』에 근거하여 家學을 정립하고, 이를 후대에 전하고자 하였다. 이는 『小學』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이다. 이러한 윤선도의 儒家的 성향은 그의 한시 작품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다.

「次樂忘韻 二首」은 광해군 8년(1616) 당시 예조판서였던 李爾瞻을 탄핵하는 疏를 올려 정국에 파란을 일으킨 윤선도가 이듬해에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지에서 지은 것이다. 당시 그의 나이 31세였다.

15) 용창선, 앞의 논문, 참조.

16) 최미애, 앞의 논문, 참조.

17) 원용문, 「윤선도 문학의 사상적 배경」, 『한국언어문학』, 1998, 참조.

清和時節雪猶殘	맑고 화창한 시절이지만 잔설이 아직 남아있네
誰信人間有此寒	누가 인간 세상에 이런 혹독한 추위 있는 것을 믿으리오.
攬茝蕙纒皆所善	구리때 따고 혜초 허리띠 해도 다 좋으며,
囚山蔡服亦云安	산에 갇혀 풀옷 입어도 편안타 이르네.
只緣愛國輕身易	다만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가볍고 쉽게 여기지만,
終爲思親忍淚難	끝내 아버지 생각에 눈물 참기 어렵구나.
渺渺飛鴻斜日外	아득히 큰기러기 지는 해 저편으로 날아가는데,
鎮胡樓上倚欄干	진호루 위 난간에 기대어 바라볼 뿐이네. 18)

좋은 시절에 유배에 처한 자신의 신세를 ‘봄철의 잔설’로 표현하였다. 王政에 참여하여 유가적 政治理想을 실현하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모함을 받아 유배를 가는 처지를 산속에 갇힌 ‘囚人’으로 표현하면서 그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愛國’의 심정에 자신의 몸은 어떻게 되어도 개의치 않으려고 작정하지만, 부모를 생각하면 극심한 불효를 저지르는 자신의 처지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고 술회한다. 하늘을 나는 기러기는 고향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지만, 유배지의 자신은 ‘鎮胡樓’ 난간에 기대어 부러워할 뿐이라고 한다. 鎮胡樓는 말 그대로 북방 유목민족을 진압하는 누대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건조물이다. 몸은 모함을 받아 변방 타향에 와 있지만, 국가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충절은 그의 말과 행동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다음 「用前韻詠懷」라는 시에서는 그가 얼마나 이상적 유가적 사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엿보게 한다.

18) 윤선도, 「次樂忘韻二首」, 앞의 책, 94쪽.

誰將七尺馬牛裾	누가 장차 칠 척의 옷 입은 마소가 되리오
宜與化翁遊太初	의당 조화옹과 함께 태초에 노닐리라
義是人間男子路	義는 인간세상 남자의 갈 길이며,
仁爲天下丈夫居	仁은 천하 대장부의 거처라네
潛心四象兩儀理	四象과 兩儀의 이치를 생각해 보고
着眼三皇五帝書	三皇五帝의 글을 눈으로 보네
大鼎珍烹何足羨	큰솥에 진귀한 음식 삶는 것 어찌 족히 부러우랴
興酣菰米配鱸魚	흥겹게 菰米를 농어와 같이 먹으리 <sup>19)</sup>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대장부의 올바른 삶의 길인 義를 실행하고, 仁의 집에 거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 시구는 『孟子』 「離婁」편에 나오는 “仁, 人之安宅也, 義, 人之正路也.”라는 구절에 근거한다. 맹자는 이어서 “사람들은 그토록 편안한 집을 비워 놓고 그곳에서 살 생각을 하지 않으며, 그토록 바른 길을 내버려 두고 그곳으로 걸어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 참으로 슬픈 비극이구나!” 하면서 탄식하고 있다. 하지만 윤선도는 의식적으로 仁을 ‘安宅’으로 삼고, 義를 ‘正路’로 삼아서 세상사에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서 윤선도의 강인한 유가적 삶의 철학을 읽을 수 있다. 진수성찬을 즐기는 부유한 생활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서 우주의 섭리를 자득하면서 성인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소박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이상적 삶이라고 한다.

儒家의 처신술은 出處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세상에 道가 있을 때는 사환의 길에 나가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세상에 道가 무너지면 아무리 높은 벼슬이라도 사직하고 은거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윤선도도 또한 이런 유가적 출처의 처신술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19) 윤선도, 「用前韻詠懷」, 앞의 책, 203쪽 참조.

吾人經濟非無志	우리는 經國濟民에 뜻 없는 것 아니나,
君子行藏奈有時	군자의 출처에는 때가 있지 않겠는가?
着處江山皆好意	이르는 강산마다 모두 마음에 드니,
夕陽歸棹不嫌遲	석양에 돌아가는 배 더디어도 싫지 않구나 <sup>20)</sup>

윤선도는 유학을 공부하여 사환의 길에 나갔던 지식인이며 행정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의 최고 목표의 ‘경세제민’을 조금도 소홀히 한 적 없지만, 자신이 처한 공간은 경세제민과는 거리가 먼 유배와 은거가 이어지는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애착이 쉽게 없어지지 않아 살펴보게 된다. 유학의 학문은 실천을 통하여 완성된다. 즉 유학적 학문은 경세제민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것을 뒤로 미루는 윤선도의 처신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절이었을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윤선도는 유가적 학문과 삶을 살려고 하였지만, 결국 외압적 조건으로 모든 이상적 삶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였다. 그것이 다음 절에서 살피는 도가적 세계라고 할 것이다.

## 2-2. 윤선도의 道家思想

윤선도는 19년간 해남 芙蓉洞에서 隱居하였다. ‘부용동’이라는 말은 바로 신선들이 사는 蓬萊島와 의미가 상통한다. 봉래도는 중국 전설에서 말하는 가상적 靈山으로, 신선이 살고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 이 ‘부용동’이라는 작명에서 우리는 윤선도가 얼마나 도교적 세계에 심취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용동’이라는 말은 윤선도가 추구한 돌파구, 이상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상향에서 윤선도는 이 세상에 없는 진실한 벗을 만나고자 하였다.

20) 윤선도, 「缸上感興」, 앞의 책, 240쪽 참조.

人寰知己少	인간 세상엔 날 알아주는 이 적어,
象外友于多	세상 밖에서 많은 것들과 벗이되네.
友于亦何物	어떤 물건들과 벗을 삼는가 하면,
山鳥與山花	산새들과 산꽃들이 벗이라네. <sup>21)</sup>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충절을 믿어주지 않으므로, 윤선도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세상 밖 존재들과 벗을 삼을 수밖에 없다. 세상 밖 존재는 유가적 틀에서 벗어난 존재인 동시에 진실한 존재들이기도 하다. 세상 여론에 부침하지 않고 진실만을 최고 가치로 존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바로 자신의 처지와 같은 산새와 산꽃들. 이름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무명의 존재들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존재들이다. ‘道’의 현현이다. 노자와 장자는 그것을 ‘無爲自然’이라고 단언하였다. 이 경우 ‘自然’은 오늘날의 ‘Science’의 개념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어떤 인위적 작위적 의도가 개입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라고 바꾸어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遠遊下笑高陽裔	멀리 노닐며 高陽의 후예를 비웃노라
經營遮莫地上友	경영함에 지상의 벗이야 상관할 것 없고
翻覆不管人間世	번복함에 인간 세상이야 관계할 것 없네.
金支翠旗眞氣濃	금빛 깃대와 푸른 깃발은 眞氣가 짙고
鳳笙龍管蘭音脆	봉황 생황과 용 피리의 蘭音이 높게 퍼지네. <sup>22)</sup>

현실 정치가 비록 자신을 배반하고 있지만, 윤선도 자신은 아무런 원망함 없이 자신을 추스르고 있다. 다만 차후로 자신이 경영하려는 세상은 불의가 판치는 지금의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예고한다. ‘眞氣’와 짙게 퍼지고 ‘蘭音’이 울려 퍼지는 세계이다. ‘眞氣’와 ‘蘭音’은 모두 ‘君主’의 역량을 형상화 한 것이다. 참된 氣로 가득찬 세계, 난초 향기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세상이다. 이것이 바로 윤선도가 추구하는 이상적 정치세계가 아니겠는가?

21) 윤선도, 「病還孤山」, 앞의 책, 108쪽 참조.

22) 윤선도, 「用前韻 戲作遊仙辭求和」, 『고산유고』, 소명출판, 2004, 157쪽 참조.

윤선도는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道家를 선택하고 있다.

笑我師經典	우스워라, 내가 經典을 스승 삼음이여,
無心鍊汞鉛	무심하게 水銀과 鈉을 鍊鍛하듯 하였네
禍階由講禮	재앙은 禮를 강론하는 데서 시작하였으니,
三百與三千	작게는 三百이요 많게는 三千이네.
早學黃通裡	일찍이 도교를 배워 통하였으나,
終羞鐵鍍鉛	마침내 철을 부끄럽게 여겨 납을 鍍金하네.
道如明一線	道는 밝은 한 줄기 線과도 같지만
瀧外任三千	여울 밖에서는 삼천 갈래로 맡겨지네. <sup>23)</sup>

성인이 가르침이 남아있는 유학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던 윤선도이지만,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지 못하는 처지가 되면서 무엇이 참 공부인지를 되새기게 되었다. 도교는 서책을 통한 글공부보다는 몸을 단련하는 의례 및 수련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의례와 몸의 수련만으로는 신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진실된 무엇인가가 필요하였다.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연금술로 얻어지는 丹藥이다. 이것을 불로장생의 불사약으로 생각한 도교에서는 몸의 수련의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단약을 제조하여 먹게 되었다. 유학에서 배운 經禮三百과 曲禮三千이 바로 윤선도의 좌절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유학에 근거한 경세제민은 바로 ‘禮’를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하고, ‘禮’를 실천하는 것에서 종결된다. 하지만 禮라는 사회적 약속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오늘날의 자신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윤선도는 ‘禮’ 너머의 세계를 추구하게 되었다. 즉 ‘자연’의 세계이다. ‘진기’의 세계이다. 다음의 시는 윤선도가 도가적 사유에 심취해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23) 윤선도, 「謹和呈龍洲」, 『고산유고』, 소명출판, 2004, 248쪽 참조.



滄玉未必藍田山	옥밥 짓는데 藍田山일 필요는 없지만
鍊丹擬學參同契	단약을 달이려면 응당 參同契를 배워야지
月窟尙了天後先	月窟에서 흑여 하늘의 선후를 깨닫는다면
金鼎何難火次第	金鼎에 불때는 순서야 무엇이 어려우리
閨風玄圃高不極	閨風과 玄圃는 드높아 다하지 않고
蓬海瀛州渺無際	蓬海와 瀛洲는 아득하여 끝이 없구나 <sup>24)</sup>

‘月窟’, ‘金鼎’, ‘閨風’, ‘玄圃’, ‘蓬海’, ‘瀛洲’ 등은 한결같이 신선이 사는 곳을 나타내는 도교적 용어이다. 신선이 되어 俗世를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윤선도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보길도에서 윤선도 자신만의 원림을 구축하고, 자연물에 ‘格紫峯’ ‘小隱屏’ ‘龜巖’ ‘薇山’ ‘樂書齋’라고 명명하고, 다시 작품에 그러한 이름들을 활용하는 태도는 그가 보길도에 도가적 세계를 형성하여 탈출구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4) 윤선도, 「用前韻 戲作遊仙辭求和」, 『고산유고』, 소명출판, 2004, 157쪽 참조.

### Ⅲ. 尹善道 한시의 自然觀과 時間觀

#### 1. 隱居地에서의 自然觀

윤선도가 활동했던 조선 사대부의 정치철학은 유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대부들은 학문과 내면 수양의 방법으로 ‘居敬窮理’를 가장 앞세우지만, 유배와 같은 갈등 상황에서는 自然에 은거하여 시문을 통한 자신의 내면표현을 추구하였다. 한편 정치의 올바른 도가 무너지는 징조가 보이더라도 출사를 보류하고 청정의 산수를 찾아 성현의 학문을 탐구하는 것에 매진하면서 사대부적 道理와 문인적 詩趣를 찾고자 하였다.

윤선도가 우연히 甫吉島를 발견하여 은거지로 삼고자 했던 시기는 丙子胡亂이 일어난 다음 해인 인조 15년(1637), 그의 나이 51세 무렵이다. 당시 무인도였던 甫吉島를 발견한 윤선도는 보길도의 곳곳에 25채의 건물과 연못, 그리고 정자를 조성하면서 자신만의 園林인 芙蓉洞 정원을 이루었다. 이는 은거지에 물리적 공간을 건축하면서 자연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을 형상화는 당시 사대부들의 자연관의 표현방식 중 하나였다고 하겠다.<sup>25)</sup> 동아시아에서는 天人合一과 物我一體라는 입장에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온 우주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공유하였다. 즉 만물과 하나가 된다는 의식 속에서 道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윤선도는 동시대 어떤 사대부보다도 많은 건축물을 보길도에 조성하였다. 이것은 현실에서 좌절된 이상세계를 원림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윤선도는 조금 앞서서 전라남도 담양에 瀟灑園을 조성한 梁山甫(1503~1557)보다 더 풍요로운 정원을 조성하고, 수많은 漢詩와 시조를 통하여 자신의 자연관을 표출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윤선도 자연관의 특성을 은거지에서 지은 한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윤선도가 처음 보길도에 들어갔을 당시, 보길도는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무인도에 가까웠다. 섬의 80% 이상은 산악지대이면서도, 물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25) 이주희, 앞의 논문. 참조

그래서 당시 보길도는 丙子胡亂 이후 복구 작업에 필요한 소나무 등의 산림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관리되던 지역이었고, 그곳의 소나무는 ‘金松’으로 지정되었던 곳이기도 했다.<sup>26)</sup>

윤선도가 최초로 보길도에 들어간 것은 51세(1637) 때로 丙子胡亂에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이다. 인조 15년(1637) 윤선도는 향족과 가북들을 규합한 의병을 태우고 강화도에 다다랐으나 강화도는 이미 함락되고 임금이 항복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윤선도는 제주도에 가서 은거하기로 작정하고 제주도로 향하던 중 태풍을 만나 잠시 들린 섬이 보길도였다. 산수가 수려하여 그곳 황원길에 내려 터를 닦고 부용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우거하였다.

하지만 유배를 당하면서 2년간의 공백기를 가졌지만 총 7차례 정도 보길도에 들어가 자연을 노래하면서 85세에 생을 마쳤다. 윤선도가 甫吉島에서 지은 대표적 한시는 「格紫峯」, 「小隱屏」, 「龜巖」, 「薇山」, 「樂書齋」 등의 작품이다.

「格紫峯」과 「小隱屏」은 윤선도가 보길도 은거시기 최초로 지은 漢詩이다. 자연을 매개로 사대부로서의 이념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 「格紫峯」에서는 우뚝 선 格紫峯 아래 파도가 밀려와 부딪히는 모습을 조화롭게 형상화 하였다. 「小隱屏」이라는 작품은 보길도에 들어가 자연경관을 두루 살필 때 침묵하지만 다양한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소은병의 자연모습에 감회를 나타낸 것이다.

蒼屏自天造	푸르게 둘러쳐진 바위는 하늘이 만든 것인데,
小隱因人名	小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랐구나.
邈矣塵凡隔	아득히 세상을 막아주니,
翛然心地清	유연히 마음이 맑아진다. <sup>27)</sup>

小隱屏이라는 바위는 보길도의 樂書齋 옆에 있는 푸른 바위이다. 윤선도는 세상의 풍파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병풍 같은 역할을 한다고 표현하였다. 小隱屏이라 작명

26) 이승희, 『고산 윤선도 원림권역의 문화경관적 해석과 가치』,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61~70쪽 참조.

27) 윤선도, 「小隱屏」, 앞의 책, 138쪽 참조.

을 붙인 이유로 윤선도는 “송나라의 주희가 경영하던 무이산의 大隱屏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었다”라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윤선도는 주희의 품격을 옮겨와서 주희와 같은 대학자를 목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小隱屏」 작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 현실이 자신을 침범하는 것을 막아주는 공간설정이라는 관념을 부조하고 있다. 소은병은 그가 조성하려는 원림의 근거가 되는 곳이었던 것이다. 원림 조성의 목적과 자신의 소신을 선명하게 표현하였다.

西山號曰薇	서쪽 산을 薇山이라 부르는데,
邈邈煙霞裏	아득히 煙霞 속에 있구나.
試使夷齊看	만약 백이·숙제에게 보게 하면,
相携定登彼	서로 손잡고 반드시 저곳에 오르리. <sup>28)</sup>

인조 15년(1637) 보길도에 들어간 들어간 윤선도는 「薇山」 등 14首의 한시를 짓고 인조 16년(1638) 기약 없는 유배 길에 오르게 되었다. 이유는 인조 15년(1637) 병자호란 와중에 강화도 근처까지 의병을 이끌고 갔던 윤선도가 서울을 지척에 두었지만 임금께 달려가 문안하지 않았다. 임금의 항복에 실망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과는 그것을 이유로 삼아 윤선도를 탄핵하고 胤德으로 유배 보낸다. 이렇듯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윤선도의 일생은 유배와 이배의 연속이 되었다.

「薇山」은 보길도 樂書齋에서 바라본 앞산의 이름이다. 자신의 처한 현재 상황을 伯夷 叔齊가 주나라 무왕을 비판하기 위하여 首陽山에 오른 것에 비유하고 있다. 이 시에서 ‘夷齊’는 『史記』에서 성인으로 평가하는 백이와 숙제이다. 백이와 숙제는 본래 殷나라 孤竹國의 왕자로 부친의 사후에 후계자가 되기를 서로 사양하다가 두 사람 모두 나라를 떠나게 되었다. 그 후 周나라 文王이 성군이라는 소문에 따라 의탁하러 주나라에 갔으나 문왕은 이미 서거하고 아들 武王이 殷나라를 치려고 하던 상황이었다. 아버지 문왕의 장례를 치른 다음 은나라 紂王을 공격할 것을 건의하였지만, 무왕은 아버지 시신을 수레에 실은 채 공격을 단행하였다. 이런 무왕의

28) 윤선도, 「薇山」, 앞의 책, 138쪽 참조.

행위는 仁義에 위배 되는 것이라 백이 숙제는 말렸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首陽山에 은거하며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고사리로 연명하다가 굶어 죽었다고 한다. 유가에서는 이들을 清節之士로 높게 숭상한다. 그런데 작품에서 ‘薇山’이란 命名은 바로 수양산에서 절조를 지키기 위하여 캐어 먹던 ‘고사리’에 모멘트가 있다.

蜿蜒水中石	꿈틀꿈틀한 물속 바위
何似臥龍巖	어쩌면 臥龍巖을 닮은 듯 하네.
我欲寫諸葛	내가 제갈공명을 본받고자,
立祠傍此潭	이 연못 옆에 사당을 세우리. <sup>29)</sup>

‘흑약암’은 윤선도의 생활공간인 朗吟溪 하류의 세연정 연못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의 모습이 ‘마치 뛰어오를 듯’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흑약암’이다. 정말 큰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한 바위이다. 윤선도는 이 바위에서 병자호란의 패배와 끊임없는 당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하였다. 윤선도는 그 바위에 올라 세연지를 두루 바라보면서 작품을 구상하였을 것이다.

「或躍巖」이 지어졌을 당시는 병자호란 등으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리더를 절실하게 찾고 기다리던 때였다. 그래서 윤선도는 「或躍巖」에서 유비를 도와 촉한을 다스렸던 제갈공명과 같은 인물을 찾고자 하였다. 당시의 조선은 제갈공명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면 난세를 헤쳐갈 수 없다고 윤선도는 생각한 것이다. 제갈공명은 유비를 도와 촉한을 창업했을 뿐만 아니라, 유비의 아들 유선을 보필하여 혼란시기를 건너뛰게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或躍巖에 기대하였다고 하겠다. 흑약암을 보고 臥龍先生을 떠올리는 윤선도의 정치관이 이 시의 저변에 깔려있다. 자연을 관찰자 관점으로 보되 보다 진일보하여 탐구자 관점에서 볼 때 이런 표현을 형상화 할 수 있다. 윤선도는 보길도의 작은 자연물을 메타포로 하여 구국의

29) 윤선도, 「或躍巖」, 앞의 책, 140쪽 참조.

이미지를 찾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一把茅雖低	한 발 띠집 비록 나직하여도,
五車書亦夥	다섯 수레에 책 많기도 하네.
豈徒搨我憂	어찌 내 근심만 없애주랴,
庶以補吾過	내 허물도 기워주리라. <sup>30)</sup>

세연정 남서쪽 격자봉 아래에는 윤선도의 서재이자 거처인 낙서재가 있다. 낙서재에서 보면 맞은편 봉우리 중턱에 동천석실이 바라보인다. 이곳에서는 보길도 제일의 경관이라고 할 연꽃에 뒤덮힌 부용동이 내려다보인다.

작품 「樂書齋」는 바로 윤선도의 생활공간을 묘사한 것이다. 格紫峯 중턱에 있는 樂書齋는 윤선도가 보길도에 들어오자마자 다른 공간보다 먼저 조성했던 곳이다. 그만큼 그의 심적인 안정을 돕는 곳이다. 이 시에서 소박한 주거공간이지만 ‘五車書’를 갖추어 두었음을 드러낸다. 상당한 양의 서적이 樂書齋에 있다는 말이고, 이는 사대부로서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대변한다. 이 집에서 오거서를 읽으면서 은거생활의 근심도 잊고, 또 유배를 당한 사대부의 허물도 보강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오거서를 갖춘 낙서재라는 서재이지만, 은거생활을 하는 쓸쓸함을 다음 작품에 형상화 하고 있다.

蕭瑟何侍共枕眠	소슬한 밤 언제나 한 이불 덮고 잘까,
獨聞中夜雨聲蓮	한밤중 연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홀로 듣네.
池塘青草非難寫	池塘青草는 묘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요,
此日難將此意傳	이날의 이런 뜻을 전달하기가 어렵다네. <sup>31)</sup>

「和諸兒作」는 쓸쓸한 밤에 뜰에 있는 연못에 핀 연꽃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쓴 시이다. 효종 4년(1653) 윤선도 나이 67세 때, 구암 아래에 교육공간

30) 윤선도, 「樂書齋」, 앞의 책, 141쪽 참조.

31) 윤선도, 「和諸兒作」, 앞의 책, 231쪽 참조.

으로 無悶堂을 지었다. 그리고 바깥쪽에 기숙공간 情成堂을 지어 자제 문인들을 거처하게 했다. 「和諸兒作」은 제목처럼 여러 아이들에게 화운해 지은 것이다. 정성당에서 자제 문인들을 거처하게 하고, 무민당에서 자제 문인들을 가르쳤던 것이다. 윤선도는 부용동 무민당에 거처하면서 곡수대에서 자제들에게 배운 글을 읽고 토론도 하게 했다. 曲水에서 놀이도 하고 洞天石室에 출입하곤 하였다. 세연정에서도 가무를 베풀면서 각종 교육을 행하였다. ‘池塘青草’의 쓸쓸함을 극복하고 후학을 양성하고자 하는 윤선도의 의지가 이 시에 배어있다.

윤선도는 자연을 단순히 감상의 대상으로만 삼은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새로운 작위를 영위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윤선도는 18차례나 각종 관직에 제수되었지만, 대부분 사직하고 은거하였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강직한 성품과 사대부의 품격으로 수백 명의 식솔에게 모범을 보여야만 했다. 그런 윤선도의 체념과 의념이 잘 나타난 시가 바로 「仝何閣」이라는 제목의 한시이다.

我豈能違世	내 어찌 세상을 어길 수 있으랴만,
世方與我違	세상이 바야흐로 나와 어그러졌네.
號非中書位	이름이야 중서의 지위가 아니지만,
居似綠野規	거처는 녹야의 규범과 같도오. <sup>32)</sup>

「仝何閣」은 윤선도의 마지막 작품이다.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삶과 세상에 한탄하지만 체념한 듯 달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해 회고의 관점에서 지은 시라는 의의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선도는 동하각을 裴度의 별장 녹야에 비유하고 있다. 녹야는 당나라 현종 때의 유명한 재상인 裴度가 은퇴한 뒤 落陽의 근교에 마련한 별장이다. 이곳에서 배도는 유명한 문인들인 白居易, 劉禹錫 등과 함께 시를 지으면서 인간 세상의 일은 잊고 만년을 보냈다. 현종 10년(1669) 윤선도가 죽기 2년 전, 「동하각」이라는 시에서 자신과 시대가 어긋나서 재상의 반열에서 세상을 경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던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불의에

32) 윤선도, 「仝何閣」, 앞의 책, 267쪽 참조.

굽히지 않고 분연히 일어난 정의과 윤선도는 결국 평생 정적들과 대치하면서 경국 제민의 이상을 실천할 수 없었다. 그런 강직한 성격이 자신을 은거하게 만들었고, 자연 속에서 이상향을 추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작품은 보길도의 은거지에서 윤선도가 자신이 조성한 인공적 공간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자연물에 자신의 관념을 투영하여 이상향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권승구는 윤선도의 자연관을 “탐구자 관점과 맞닿아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만물의 근원을 道로 보며 깨달음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유교사상적 自然觀”이라고 평가하였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본고의 고찰을 통하여 윤선도의 자연관은 ‘작위적 자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무명의 자연경관에 윤선도의 이상을 구현할 인공적 공간을 조성하고, 그로 인해 무명의 자연은 유명한 자연으로 거듭나는 창의적 자연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본고는 ‘작위적 자연관’이라고 제의한다. 다음의 시는 그러한 ‘작위적 자연관’이 여실하게 형상화된 작품이다.

黃原浦裏芙蓉洞	황원포 안쪽은 부용동인데,
矮屋三間蓋我頭	오두막 집 삼간이 내 머리를 덮고 있네.
麥飯兩時瓊液酒	보리밥 두 끼니와 옥으로 빛은 듯한 술 있으니,
終身此外更何求	종신토록 이것 외에 무얼 더 구하리. <sup>33)</sup>

황원포는 보길도의 오래된 지명이다. 하지만 부용동은 윤선도가 명명한 지명이다. 이름없는 자연에 부용동이라는 이미지를 입힌 것이다. 그 속에 소박한 주거공간을 만들고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윤선도는 체념과 자족을 보여준다. 인간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좋은 집도 아니고 진수성찬도 아니다. 죽을 때까지 추구해도 마치지 못하는 것은 의념이다. 경세제민을 목표로 사환의 길에서 정적을 만나 실의를 하고 말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대부의 할 일이다.

효종 10년(1659)과 현종 15년(1674)에 두 차례 예송논쟁이 벌어졌다. 효종 10년(1659)에 죽은 조대비의 상복문제 논란이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은 1년만 상복

33) 윤선도, 「記實」, 앞의 책, 266쪽 참조.



기간으로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반면 남인은 현재의 왕이 둘째 아들이었지만 왕위 계승자이므로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론은 서인의 송시열 주장대로 1년복을 입기로 하였다. 당시 남인이었던 윤선도는 상소를 올려 부당함을 강조하였다. 또 현종 15년(1674)에 두 번째의 예송논쟁이 있었다. 이때는 남인의 뜻이 관철되었지만, 윤선도는 이런 비생산적 예송에 염증을 느끼고 부용동 자신의 세계로 회귀하였다.

그리고 쓴 시가 「其實」이다. 윤선도가 서인과의 예송논쟁에서 패하고 8년간의 옥고를 치르다 석방된 지 1년 뒤에 쓰인 작품이다. 윤선도 말년의 작품에 해당하는 「기실」의 키워드는 마지막 구절 ‘終身此外更何求’이다. 세상만사가 다 허망하다는 노장적 자연관의 체념과 달관의 경지가 드러난다.

## 2. 隱居地에서의 時間觀

시작품을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시간관의 고찰이다. 이런 방법론은 대부분 소설, 현대 시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어왔다. 이런 작품의 시간관을 분석하는 방법을 본고에서는 윤선도의 漢詩 작품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시간관에 관한 연구는 윤선도 문학연구에 있어서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尙旭이 윤선도의 시간관과 자연관이 연구한 것이 가장 대표적 선행연구가 된다. 이에 본고는 상옥의 시간관에 대한 연구를 참조하면서 본고 나름대로 윤선도의 시간관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 성장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듯, 오직 시간에 의해서만 존재의 양태가 드러난다.<sup>34)</sup> 칸트는 “모든 현상과 모든 대상은 시간을 통해 존재하고 필연적으로 시간과 관계한다.”고 말한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심적인 상태와 의식과 감정 그리고 욕망을 표현하기 어렵다. 인간이 시간을 인식하는 의식에는 두가지 지표가 있다. 하나는 선형적 직관과 외적 형식, 다른 하나는 선형적 직관과 내적 형식이다. 칸트는 결국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관이 필수적 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인간이 인식하는 시간은 무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공간의 차이에 따라 상대적이며 超越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은 존재가 아니라 의식의 한순간 즉 점이 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표상은 실제든 의식의 활동이든 언제나 시간적 순서를 가지고 존재하며, 개인에게 시간은 ‘유일’이면서 ‘하나’의 표상으로 인식된다. 시간은 현재 지금만 있고, 그 이전을 상대적으로 과거라고 지칭하고, 그 이후를 미래라고 지칭한다. 먼 미래이든 현재이든 자신의 안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시간은 끝과 시작을 알 수 없는 관념의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존재하고 인식되는 개념을 통해서만 인식 가능하다. 이렇듯 시간은 상대적 개념이다. 대상에 따라, 장소에 따라, 의식하고 바라보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작품 속에 나오는 시간을 인식할 때에는 단순히 존재하는 자연적 · 물리적 시간보다는 작자가 체험하였던 경험적 시간이 분석의

34) 김경복, 앞의 논문, 참조.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한시 작품 안에서의 시간을 인식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한시 작품 속의 시간은 자연적이며 물리적 시간보다는 작자가 직접 체험한 시간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분석을 통하여 시적 화자가 보여주는 의식의 변화를 유의미하게 해석해야 한다.

둘째, 한시 작품 속의 시간은 작가의 작품 속 현 존재를 통해 인식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시간 인식 개념을 토대로 은거시기 윤선도의 한시 작품 속의 시간관의 특성을 고찰한다.

洪濤巨浪中	높은 파도 큰 물결 가운데에서,
特立不前却	우뚝이 선 채 움직이지 않는구나.
欲格紫微心	紫薇宮에 나아갈 마음 있거든,
要先恥且格	먼저 부끄러운 줄 알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네. <sup>35)</sup>

「格紫峯」은 보길도에서 은거하면서 지은 최초의 한시이다. 윤선도는 「格紫峯」의 기구와 승구에서 “높은 파도 큰 물결 가운데에서 우뚝이 선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격자봉이라고 표현한다. 파도와 물결의 멈춘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이것은 丙子胡亂 뒤 황폐해진 나라 모습을 은유하기도 한다. 혼돈의 국정을 멈춰버린 시간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혼란을 극복하고 ‘紫薇宮’에 가고자 한다면, 혼란을 야기한 결과에 대한 반성과 혼란을 극복하여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격려한다. 즉 사대부 본연의 修己治人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자미궁’은 별자리로 ‘천당’을 은유한다. 자연에 대한 시간적 고찰을 통하여 시적화자의 성찰을 표현한 것이다. 「格紫峯」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적화자의 성찰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사대부의 진정한 자세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격자봉」은 인조 14년(1636) 청나라 태종의 2만 대군 앞에 조선의 국왕인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가 끝내 삼전도에서 굴복하였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

35) 윤선도, 「格紫峯」, 앞의 책,

로 하고 있다.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역사적 사건 앞에 윤선도는 현실정치를 떠나 은거생활로 접어든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나온 「格紫峯」은 같은 시기의 작품인 「小隱屏」과 함께 윤선도의 내면적 고뇌를 잘 표현한 작품이다.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고, 한편으로 경험적 고난의 시간을 잊으면서 새롭게 안정과 포부를 표현한 것이다.

다음은 세월을 낚는 낚시 배에 관한 작품이다.

長蓑短笠跨青牛	긴 도롱이 짧은 갓, 푸른 소에 걸터앉아
袖拂烟霞出洞幽	소매로 烟霞 떨치며 깊은 골짜기 나서네.
暮去朝來何事役	저물녘에 나가 아침에 오며 무슨 일 하나?
滄洲閑弄釣魚舟	창주에서 한가로이 낚시배를 젓누나. <sup>36)</sup>

「釣舟」는 인조 15년(1637) 보길도에서 지은 작품이다. 낚시하는 모습에 과도나 바람은 나타나지 않고, 저물녘에 배를 띄워 나갔다가 다음날 해가 뜨고 돌아온다는 표현을 통하여 감감한 밤을 할 일 없이 滄州에서 노를 저으면서 보냈다고 한다. 밤사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한가로이 낚시배를 저었다’는 것은 세속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연과 하나가 된 자유인의 모습이다. 경험적 시간을 초월한 시간의식이 엿보인다.

이 작품에는 ‘소매로 연하 떨치며 깊은 골짜기 나서는 시간’, ‘저물녘과 아침의 시간’이 나온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꿰뚫는 정서는 ‘閑弄’이라고 표현된 ‘한가로움’이다. 윤선도의 시간은 자유인의 시간이다. 일반적 노동의 시간은 아침에 일터에 시작하여 저녁에 귀가하면서 마치게 된다. 하지만 자유인의 시간은 저녁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아침에 돌아온다. 그리고 하는 일은 ‘閑弄’, 한가롭게 노니는 것이다. 생계유지를 위한 고기잡이가 아니라, 세월을 낚는 고기잡이이기 때문이다. 강태공이 낚시를 하면서 도가 실현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을 기다린 것처럼. 시간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무한의 개념이면서 관념의 개념이다. 시간의 처음과 끝을 보는 것은 불

36) 윤선도, 「釣舟」, 앞의 책, 137쪽.

가능하다. 우리 눈앞에 존재하고 인식되는 개념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유추할 뿐이다.

고기잡이를 표현한 「釣舟」에서는 윤선도의 무한이라는 관념의 시간이 형상화되었다. 보길도에 은거하던 시기, 자연과 자신과의 합일을 추구하였던 윤선도는 원림구축이라는 과정에서 시간의 변화 추세를 인식하려고 하였다. 저녁에서 다음 날 아침까지 천천히 흐르는 시간선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심신을 다스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신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格紫峯」의 시간 의식과 비교하면 더욱 그 특징이 부각된다. 현실은 병자호란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정이 멈춰버린 것 같이 참혹하고 암담하였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은거의 여유를 찾으려 비로소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대부 윤선도는 현실을 무시하기는 어려웠다. 다음 작품은 은거지에서 여유도 결국은 화자의 심정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함을 표현한다.

眼在青山耳在琴	눈은 청산에, 귀는 거문고에 가 있으니,
世間何事到吾心	세간의 어떤 일인들 내 마음에 닿겠는가?
萬腔浩氣無人識	몸 가득한 浩然之氣를 아는 이 없나니,
一曲狂歌獨自唸	한 곡조 狂歌나 홀로 읊조리네. <sup>37)</sup>

보길도 원림에서 안정을 찾으며 안빈낙도의 생활을 표현한 작품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釣舟」와 「樂書齋偶吟」라는 작품이다. 「樂書齋偶吟」은 윤선도가 보길도에 두 번째 들어갔던 인조 20년(1642)에 지은 작품이다. 윤선도가 처음 보길도에 들어갔을 때의 작품인 「樂書齋」와 비교하면, 윤선도의 경험적 시간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이 시기는 1차 입도 때와 달리 인조 17년(1639) 경북 영덕에서 해배된 뒤, 보길도에서 은거생활을 하면서 지은 작품이기 때문이다.

1차 입도 때 지은 「樂書齋」에서는 전구와 결구의 ‘어찌 내 근심만 없애주랴, 내 허물도 기워주리랴’라는 표현에서 그동안의 경험적 시간에서 발생한 온갖 근심을 잊

37) 윤선도, 「樂書齋偶吟」, 앞의 책, 191쪽 참조.

고 심신의 안정을 찾겠다는 시적화자의 심정이 잘 형상화 되었다고 한다면, 「樂書齋偶吟」에서는 流配 생활에서의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충전을 통한 수신의 수양에 힘쓰고 있음을 형상화 하고 있다. 특히 전구와 결구에서 ‘몸 가득한 호연지기를 아는 이 없나니, 한 곡조 狂歌나 홀로 읊조리네’라는 표현을 통해 윤선도 스스로 심신 수양을 통한 호연지기를 길러 세상에 자기 주장을 제안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인조 20년(1642)에 지은 첩지 임확의 挽詞이다.

公之策名三十載	공이 명예를 꾀한 지 삼십 년이나
公之西笑吾不省	공이 헛된 일을 즐기는 것을 나 본 적 없어요.
此事誰知不易辦	이런 일 쉽게 할 수 없음을 누가 알리오만
無官不獨官獨冷	관직 없는 이야 혼자 아니나 관직 유독 낮았구려.
天之報施亦已明	하늘의 보답이야 또한 이미 밝으니
五男守家壽復永	다섯 아들 가법을 지키고 수명 또한 길었다네.
嗟我何爲分外悲	아! 나는 어찌하여 지나치게 슬퍼하는가?
病未執紼心耿耿	병들어 영구를 끌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다네. <sup>38)</sup>

「挽林僉知確」은 윤선도가 2차로 보길도에 들어갔을 때 지은 한시이다. 고인이 된 임확도 지난 30년 동안 관직에 나가 명예를 구하려 하였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음을 위로한다. 미관말직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권력을 향하여 아첨하거나 허튼짓을 하지 않는 임확의 올바른 삶을 회고하면서, 윤선도 자신의 삶의 방향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동감한다. ‘공이 西笑함을 나 본 적 없어요.’는 말은 후한시대 桓譚의 『新論』에 “사람들이 장안의 음악소리를 들으면 문을 나서면서 서쪽을 향해 웃는다”는 속담을 소개한 글이 전거이다. 즉 부질없이 헛된 일을 즐기는 것을 뜻한다. 임확이나 윤선도 자신이나 모두 정의실현을 위하여 올곧게 살려는 삶의 태도를 고지했음을 표현한 것이다. 자신이 슬퍼하는 이유는 ‘병들어 영구를 끌지 못해 마음이 편

38) 윤선도, 「挽林僉知確」, 앞의 책, 157쪽.

치 않다.’라고 말한다. 시적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은 生老病死 중 ‘生老病’의 경험이다.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회상을 통해 경험적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

윤선도에게 만사는 의의가 크다. 아들과 제자가 죽었을 때, 부인과 손자까지 사망하였을 때, 그때마다 윤선도는 만사를 지어 고인을 추모하였다. 인조 14년(1636) 50세 때 차남 의미가 죽었고, 인조 25년(1647) 61세 때는 제자이면서 外甥인 심광면이 사망하여서 哀詞를 지었다. 효종 6년(1655) 69세 때는 부인 남원 윤씨가 사망하여 만사를 지었고, 효종 7년(1656) 70세 때에는 손자 이구가 사망하여 挽詩 15운을 지었다. 현종 10년(1669) 83세 때는 아들 禮美가 사망하여 만사를 지었다. 누구나 죽음 앞에 숙연해진다. 자식이나 손자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이 큰 슬픔이지만, 윤선도는 임확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떠올리며 만감이 교차함을 시로 형상화한 것이다. 윤선도에게 시간은 직선적 유한의 시간이 아니다. 물리적 시간을 자신이 겪는 체험을 통하여 심리적 시간으로 전환하였고, 다시 작품을 통하여 형상화하면서 순환적 시간으로 전개시켰다.

「克兒湯餅日作」은 아들 극아의 돌날에 지은 시다. 이 당시 윤선도의 나이는 환갑을 넘긴 상태로, 인생을 정리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즈음이다.

欲賦弄璋無別語	아들 낳은 기쁨을 시로 지으려니 특별히 할 말 없고,
令人却憶石洲詩	도리어 石洲의 시를 떠올리게 하네.
白頭永隔趨庭日	백발나이 되어 뜰에서 가르침 받던 시절과는 멀지만,
忍想吾身似汝時	아직도 내 몸은 너와 같던 시절을 기억하네. <sup>39)</sup>

윤선도는 3차 입도시에 아들을 얻은 기쁨을 표현하려고 「克兒湯餅日作」라는 시를 지었다. 어린 생명을 얻은 기쁨도 잠시, 이미 ‘백발’이 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다. 자신은 늙었지만 아직도 부모님 가르침을 받던 어린 시절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삶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39) 윤선도, 「克兒湯餅日作」, 앞의 책, 138쪽.

승구의 “도리어 石洲의 시를 떠올리게 하네”라는 표현은 임진왜란의 혼란시기를 거치면서 올바른 말을 거침없이 행하던 權韜(1569~1612)의 삶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방향과 같음을 회상하는 부분이다. 권필은 시재가 뛰어나 자기성찰을 통한 울분과 갈등을 토로하고, 잘못된 사회상을 비판 풍자하였다. 유명한 문인이었지만 과거시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술과 詩로 세월을 보냈다. 강화에 있을 때는 많은 유생을 가르쳤다. 그는 광해군의 외척들을 비난하는 풍자시 「宮柳詩」를 지은 것이 원인이 되어 해남에 유배되어 귀양길에 올랐다가 도중에 술에 취해 44세로 죽었다고 한다. 윤선도는 자유분방하면서도 올바른 직언을 서슴지 않는 권필의 삶에서 자신의 삶의 정당한 시간을 찾고 있었다고 하겠다. 또한 이 권필의 시로 弄璋之慶을 대신하고, 어린 아들의 앞으로의 삶에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시간을 형상화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윤선도 자신은 비록 백발이 무성한 환갑의 나이지만, 어린 아들도 자신이 살아왔던 올바른 삶의 경험시간을 알려주려고 하는 의념이다.

윤선도가 甫吉島 은거시기 후반부에 지은 작품으로는 「次三閭廟韻」, 「和諸兒作」, 「和哀林慶業」, 「記實」, 「遣懷」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은거시기의 초반부와는 다른 시간관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次三閭廟韻」을 살펴보자.

鄴郢無遺址	鄴郢에는 남은 자취 사라졌고
章華草木深	章華에는 초목만 우거졌네.
誰知屈子廟	누 알리오? 屈原의 사당이
千載映江林	천년토록 강가 수풀에서 빛을 발함을. <sup>40)</sup>

「次三閭廟韻」은 삼려묘에 차운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三閭’는 三閭大夫로 있다가 조정에서 쫓겨난 戰國時代 楚나라의 屈原이다. ‘鄴郢’과 ‘章華’는 초나라의 도읍지이었지만, 초나라 멸망 후 자취만 남아 있는 장소이다. 이 두 장소의 공간적 영화로움은 사라졌지만 역사의 시간에는 자취를 남기고 있듯, 자신도 왕에게 버려져 조정의 현실정치에서는 외면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왕과 국정에 대한 정의감은 사그라지지

40) 윤선도, 「次三閭廟韻」, 앞의 책, 231쪽 참조.



앎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결구의 ‘천년토록 강가 수풀에서 빛을 발한다’는 표현을 통해 경험시간과 미래시간을 순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후반부의 작품에서는 전반부의 원림조성 시기에 보여주는 자연친화의 사상은 많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신 역사의 시간 즉 경험의 시간을 보여주면서 현실에 대한 순응과 달관의 시간관을 드러내고 있다.

‘三閭廟’의 주인공인 굴원은 「離騷」라는 장편 서사시를 남기고 있다. 「이소」는 초나라의 정치가이자 문인인 굴원이 반대파의 모함으로 유배를 당한 처지에서 쓴 373구의 유배문학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굴원은 억울한 流配자의 선배이며, 상징이 되었다. 「이소」는 ‘불행을 만나 지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이 시는 ‘연군지정’과 ‘우국지정’을 드러내면서 작가 굴원의 이상과 행적이 실려있다.

「이소」의 3장은 후세에 많이 회자되었다. 굴원이 전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나라와 주군을 위해 힘썼지만, 왕은 반대파의 의견만 듣고 자신을 배척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이소」의 내용은 윤선도 자신도 일신의 안위보다는 구국을 위한 직언을 하다가 유배당한 억울함과도 상통하는 정서이었을 것이다. 「이소」의 마지막 부분인 16장에서는 미래의 정국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어 결국은 절망 끝에 죽을 것을 암시한다. 윤선도의 이런 체념의 정서가 「次三閭廟韻」에 기초를 이루면서 미래에 대한 시간관을 암시하고 있다. 무려 이천 년 전의 굴원과 보길도의 은거자 윤선도의 역사적 교감이 「次三閭廟韻」에 형상화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선도의 은거지 한시를 대상으로 그의 시간관을 분석하였다. 작품에서 보이는 시간은 단순한 물리적 시간이 아닌 심리적 시간과 경험적 시간, 그리고 역사적 시간이 담겨있다. 循環과 永遠이라는 동아시아 고유의 시간관이 자연과 함께 융합되어 인간의 유한한 경험적 시간을 초탈하고 있다.

## V. 결론

윤선도는 정치가이면서 문학가이며 사상가라고 평가된다. 이는 유학을 배우고 과거를 통과하여 사환을 하였던 중국 및 조선의 지식인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양상이기도 하다. 그는 유학은 물론이고, 도교·불교를 비롯하여 의학·풍수·건축·음악 등 다방면에 조예가 깊었다.<sup>41)</sup> 그는 26세에 進士에 급제하고 사환을 시작하였지만, 곧은 신념과 성품 때문에 생애 절반 이상을 流配地와 隱居地에서 보내야만 하였다. 이런 고난의 삶이 그의 문학작품 안에 오롯이 형상화 되었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연구자의 조명을 받아왔다.

본고는 윤선도의 문학작품 중 한시 작품 분석을 하였다. 특히 은거지 보길도에서 창작된 작품이다. 본고에서 고찰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시 작품을 분석하기 위한 토대로 우선 윤선도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았다. 生涯는 『고산유고』 부록에 실려있는 「諡狀」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수학기: 윤선도의 선조들은 대대로 湖南 海南縣에 거주하면서 생활하였지만, 윤선도는 한성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5세가 되기도 전에 이미 글을 지을 줄을 알아서 한 편씩 발표할 때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일찍부터 문학적 재능을 드러냈다. 20세가 되던 1612년에는 進士에 합격하였다.

사환기: 그가 벼슬살이를 시작한 17세기 조선은 붕당 간의 대립이 치열한 때였다. 40세에 安奇察訪에 제수되고, 45세에는 刑曹正郎에 제수되었지만 곧 사직하였다. 그 이후 인조 시대에도 여러 차례 제수되었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대부분 사직하거나 취임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로 윤선도가 사환의 생활을 보낸 것은 10여 년에 지나지 않는다.

유배기: 첫 번째 유배는 30세 때 당대 정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붕당 세력 내 최고의 권력자이던 이이첨의 전횡을 탄핵하기 위해 「병진소」를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함경도 경원, 경상도 기장 등에 유배되었다. 두 번째 유배는 53세 때 병자호란이 끝난 뒤 모함을 받았다. 병자호란 당시 御駕를 따르지 않았으며, 전란이 끝

41) 고영진, 「호남남인 윤선도의 관계망」, 『민족문화연구』 제81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8, 138~139쪽 참조.

나고는 서울을 지척에 두고 문안하지 않았다는 不奔問한 죄로 경상도 盈德에 1년 여 간 유배되었다. 세 번째 유배는 예송논쟁에서 서인에게 패배하여 74세 되던 해 함경도 三水에서 유배되어 79세에 전라도 光眼으로 이배될 때까지 약 5년 남짓 기간이다.

은거기: 윤선도의 3번의 유배기 사이에는 해남 및 보길도의 자연 속에서 은거생활을 보냈다. 芙蓉洞과 金鎖洞의 자연 심취한 윤선도는 10년 동안 이곳에서 은거생활을 보냈다. 그는 보길도 곳곳에 25채의 건물과 정자를 세우고, 또 연못을 조성하여 본인의 이상향을 이루었다. 윤선도는 81세가 되던 현종 8년에야 비로소 사면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은거생활을 하다가 85세에 생을 마감하였다.

이처럼 윤선도의 생애를 수학기, 사환기, 유배기, 은거기의 4부분으로 구분하여 그 특색을 서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윤선도의 思想은 개괄적으로 표현하면 “나가면 儒, 들어가면 道”라고 할 수 있다. 윤선도 사상의 유가사상적 측면과 도가사상적 측면을 윤선도의 작품을 통하여 고찰하고 해석하였다.

둘째, 윤선도의 은거지 한시를 대상으로 그의 자연관과 시간관을 분석하였다. 은거시기 시세계를 ‘자연관’과 ‘시간관’이라는 공간적+시간적 연구방법을 가져와서 분석하였다. 가능하면 기존연구도 소개하면서 차별성을 적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주로 은거기 초반에는 ‘부용동’을 비롯한 원림을 조성하는 가운데 작위적 활동과 자연이 융합하는 양상을 찾아냈다. 이것을 가설적으로 ‘작위적 자연관’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은거기 후반에는 역사적 전거를 소재로 자신과 역사적 사실을 동일시하는 정서가 부각되는 작품이 많았다. 이런 작품에서 ‘경험적 시간관’ 또는 ‘초탈의 시간관’을 설명할 수 있었다.

윤선도의 은거시기 시세계는 보길도라는 섬에 새로운 이상향을 건설하는 의념과 정의감에 불탔던 정치관을 반추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형상화한 작품세계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선도는 보길도에 들어간 초기에는 자연관의 관점에서 창작활동을 하였던 반면, 후기로 가면 경험적 시간관에 의거한 창작활동이 많았던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은거지에서의 윤선도의 생애와 사상을 확인한 점과 그것을 한시작품에 어떻게 형상화하였는가를 고찰한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윤선도는 유학적 학문소양과 도학적 폭넓은 관심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창작세계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윤선도의 은거지 시세계는 보길도라는 새로운 이상향을 건설하는 이념과 정의감에 불탔던 정치관을 반추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형상화한 작품세계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향후 윤선도의 은거시기 시세계 연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윤선도, 『孤山遺稿』, 소명출판, 2004.
- 김지연 외 3인,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 국립문화연구소, 2011.
- 고영진, 「호남남인 윤선도의 관계망」, 『민족문화연구』 8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8.
- 권승구, 「고산시가에 나타난 자연관-어부사시사와 한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경복, 「생태시에 나타난 시간의식의 의미」, 『문창어문논집』 39, 문창어학회, 2002.
- 김석희, 「윤선도의 자연관과 그 실현양상에 관한 연구」, 『고산연구』 1, 고산연구회, 1987.
- 김영근, 「산중신곡과 어부사시사의 자연관」,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류근안, 「고산 시가에 나타난 현실인식 연구」, 『어문논집』 28, 중앙어문학회, 2000.
- 문영오, 「고산문학의 풍수사상 현장화 양태고구」, 『국어국문학』121, 국어국문학회, 1998.
- 문영오, 「윤고사의 인생관」, 『동악어문학』11, 동악어문학회, 1978.
- 상욱, 「고산 윤선도 문학의 자연관과 시간관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성기욱, 「고산시가에 나타난 자연인식의 기본틀」, 『고산연구』 1, 고산연구회, 1987.
- 성범중, 「윤선도의 한시 연구」, 『고산연구』 2, 고산연구회, 1998.
- 성종상, 「조경설계에 있어서 ‘생태-문화’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고산 윤선도 원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신은경, 「윤선도의 시문에 있어 유·도 역학관계 형성의 원천에 관한 연구」, 『동양학』 4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9.
- 오선주, 「고산 윤선도의 삶과 문학 소고」, 『시조학논총』 23, 한국시조학회, 2005.
- 용창선, 「윤선도의 한시 연구: 유배와 은거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원용문, 「윤선도 문학의 사상적 배경」, 『고산연구』4, 1998.
- 위정선, 「고산 윤선도의 사고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승희, 「고산 윤선도 원림권역의 문화경관적 해석과 가치」,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주희, 「시품의 풍격과 한국 은사문학의 건축」,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이청수, 「고산 윤선도 시조의 시공간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정동오, 「윤선도의 부용동 원림에 관한 연구」, 『고산연구』 1, 고산연구회, 1987.
- 최미애, 「고산 윤선도의 시조에 나타난 사상성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최은옥, 「윤선도 시가 연구-도가사상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하광철, 「조선 중기 사림계층의 자연관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